

청년인재 교육-창업-정착 원스톱 지원 나서

ECONOMY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중기부-교육부, 광주드림패스 시범사업

11개 대학 참여...취업 등 정주기반 마련

광주에서 청년 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광주드림패스’가 그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일 호남연수원에서 지역 11개 대학과 함께 ‘광주드림패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중기부와 교육부가 체결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반 지역주력산업 육성 협약’ 일련으로, 지역 대학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광주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광주캠퍼스, 호남대학교 등 총 11개교이다.

‘광주드림패스’는 지역 산업 수요 기반 교육과정 공동 기획·운영,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및 지역 정주기반 마련, 청년창업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일 호남연수원에서 지역 11개 대학과 함께 ‘광주드림패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펼친다. 중진공은 광주 RISE센터 및 RISE사업 참여대학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에게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실습중심기술교육,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 플랫폼

인 ‘K-Work 플랫폼’을 적극 연계 지원할 방침이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타 지역으로의 확산도 계획 중이다.

협약식에는 임상규 중기부 지역혁신정

책과장, 최경화 광주시 대학인재정책과장, 김보현 광주라이프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상생을 위한 공동 약속에 힘을 실었다.

업무협약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광주 RISE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학별 정책 건의와 지역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중진공은 기업 지원 노후가 있는 기관인 만큼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자·산·학·연 협의체 운영 등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이번 광주드림패스를 통해 지역과 대학, 기관이 함께 청년 인재의 교육-창업-정착을 연결해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신용보증재단, ESG경영 최우수기관 ‘기재부 장관상’

마스터플랜 수립 사회적 가치 창출 도민행복 실현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금융피해 방어막 구축 노력

민관학 협력·청렴거버넌스 강화 신뢰받는 기관 도약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은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에서 ESG경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ESG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정착시켜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ESG경영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관을 선정해 정부 및 부문별로 포상한다.

전남신보는 전남도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해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ESG경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기관 최초로 ‘ESG 경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청정전남 구현, 상생·동행 강화, 투명경영 확립이라는 3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경영 전반에

ESG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생활밀착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원거리 및 고령화 지역을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하며 보증, 대출, 재무 상담, 경영지도, 보건 의료까지 금융서비스부터 비금융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객 편의성 제고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에 기여해 ‘2024년 도민행기단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됐다.

또한 불법 브로커,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체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밖에도 도내 민·관·학 협력을 통해 무료로 영세 점포의 환경 개선과 흥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에서 ESG경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청렴 거버넌스 강화 노력을 통해 ‘전남도 공직 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ESG 우수기업 표창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ESG 경영 선

목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신보는 2025년 ESG 경영 세부 계획안을 수립하고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생명 나눔을 위한 단체인혈,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식물 키우기 키트 나눔, 지역 환경을 보호하는 플로깅(plogging) 행사 등 일상 속 작은 실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중기 공동브랜드 제품 구매 확대를”

광주경총, 대선공약 제언

광주경영자총협회가 2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제품 구매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공동브랜드는 대기업 가진 생산라인 일부 해외 이전에 대응, 대기업 의존형 가전 산업 생태계를 완제품 생산체계로 전환해 지역 가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지역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 판매와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해 온 것으로 선정된 기업은 광주공동브랜드 사용이 가능하며 맞춤형 마케팅과 제품 홍보, 국내·외 전시회참가, 수출상담회 지원, 라이브커머스 및 할인판매 기획전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중소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광주공동브랜드 지엘(GIEL)은 45개

기업이며 가전, 전기·전자 제품 등을 지역 기업에서 생산한 공기청정기, 제빙기, 살균건조기, 가습기, 두피케어기 등으로 생활밀착형 제품들로 구성돼 있다.

단체는 “최근 광주공동브랜드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광주시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기업 수준의 국내외 마케팅과 A/S분야에 어려움이 많아 대량 생산에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광주공동브랜드 사업이 내년이면 10년째로 지역 중소기업은 대기업 못지않은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광주시에서는 제도화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설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역제품 우선 구매 등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사이버보안 기업 ‘고스트패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선정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주식회사 고스트패스(대표 이선관)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서 지역 기업 최초로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분야 유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 집중 육성하는 중기부 프로젝트다. 고스트패스의 독자적인 온디바이스 생체인증 기술이 미래 사이버보안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인정 받은 결과로, 향후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도약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스트패스의 주력 기술은 사용자의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관리하는 탈중앙화 온디바이스 인증이다. 이를 통해 해킹이나 정보유출 위험을 원천 차단하며, 글로벌 개인정보보호규제(GDPR 등)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고스트패스는 향후 3년간 총 6억원 규모의 사업과 자금을 비롯해 기술 고도화, 대기업과의 협업 기회,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고스트패스는 지난해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광주상의 “금호타이어 정상화 신속 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정·긴급복구비 등 촉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발생 나흘 만에 완전 진화된 가운데 광주상공회의소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의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화재로 주요 생산시설이 큰 피해를 입고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것은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2300여명의 근로자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제조업의 중심축 역

할을 해온 상징적인 기업”이라며 “최근 전기차용 고성능 타이어 개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오며 올해 매출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던 상황에서의 피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국비를 통한 긴급복구비 지원 및 재해 복구 절차 신속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장 복구가 지연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클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지정과 실질적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또 공장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과 생계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한 고용정책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일시휴업 보상, 협력업체 지원 대책 등 고용 안정 방안을 함께 마련해줄 것도 요청했다.

광주시에도 피해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 감면, 긴급 경영안정자금 연계, 원스톱 행정지원 창구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상의는 “지역 산업을 함께 일구는 금호타이어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지역상공인들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이번 위기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나서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일 지역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인 벨크커피와 광주형 프랜차이즈 연계 콘텐츠 융복합 상품 유통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콘텐츠 융복합 상품 유통 ‘맞손’

GICON-벨크커피 협약...전국 시장 진출 협력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20일 지역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인 벨크커피(대표 이윤식)와 광주형 프랜차이즈 연계 콘텐츠 융복합 상품 유통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콘텐츠 기업이 보유한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IP(지식재산권)를 상품화하고 유통해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GICON은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에서 개발된 콘텐츠 IP 상품들을 벨크커피와 같은 지역 기반 유통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사·제조사·기획사 등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광주 콘텐츠 IP 상품 유통 협의체’를 구성, 지역 콘텐츠 IP 상품의 지속적인 판로 확대와 민간 네트워크 기반 유통 생태계 조성에 나설 예정

프의 대중적 노출과 소비자 접점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GICON이 추진 중인 ‘지역 특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의 연장선으로, 지역 콘텐츠 기업이 보유한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IP(지식재산권)를 상품화하고 유통해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GICON은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에서 개발된 콘텐츠 IP 상품들을 벨크커피와 같은 지역 기반 유통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사·제조사·기획사 등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광주 콘텐츠 IP 상품 유통 협의체’를 구성, 지역 콘텐츠 IP 상품의 지속적인 판로 확대와 민간 네트워크 기반 유통 생태계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



숨을 드린다”며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금호타이어, 공장 인근 주민 일상 회복 ‘온 힘’

한달 간 살수차 운영...교육기관·아파트 놀이터 청소봉사도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광주 공장 화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쏟는다.

금호타이어는 20일 오후부터 살수차를 운영해 소문·송정·선운·도산동 등 광주 공장 일대를 돌며 도로에 떨어진 분진 등을 세척한다고 밝혔다. 한달 간 쉬는 날

없이 운영하며 시운행 후 증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점수를 받고 있으며 교육기관, 아파트 내 놀이터 등 청소지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공장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